

전환기의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Zeitgeist and Christian Worldview

전광식(고신대 교수 신학과)

- I. 밀레니엄 전환기에서의 문명의 흐름
- II. 20세기 문명에 대한 평가와 반성: 획득과 상실, 발달과 위기
- III. 인간의 위기와 그 위기에서 파생된 인생관 또는 이상들
- IV. 현대인의 인생관과 세계관
- V. 인간의 문제와 종말 현상

*** 본고는 1999년 4월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초청 강좌와 같은 해 7월 캐나다 밴쿠버의 Willingdon교회에서 열린 'VIEW 세계관 공개강좌'에서 발표된 것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이다.

Abstract

In the last century, the mankind on the earth had experienced a lot of things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development', on the one hand, but he had met continuously terrible things which were called 'crisis', on the other hand. The train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run on the lines of development and crisis.

In the spite of that, the sky of Zeitgeist is overwhelmed not so much by the optimistic atmosphere as the pessimistic. The world at the transition of millennium is not more expectation of 'a new and brilliant utopia' but is filled with the spirit of 'the End of the World.' In my opinion, the crisis and the human consciousness of it are not any temporary phenomenon, but a structural and essential.

Among the factors which cause the crisis, are first of all crises of science, domestic international society, labor and economy, physical nature. The most important factor would be probably crisis of human being.

While the Christianity confesses the human being as the creature of imago Dei, the materialism of Marx, the evolutionism of Darwin and the psychoanalysis of Freud considered him only as a material, biological and mechanical thing and reduced him at best a higher kind of animal world which has intellectual function and labor power.

At the crisis of this lower anthropology stands the western culture on the brink of ruin.

The western culture has driven out God and all things related with him from their consciousness and life, science and society since the Enlightenment.

The man and society of western civilization has been from that time on dominated by secularism, anthropocentrism, scientism, relativism, laissez-faire, ideological worship. Moreover, nihilism and hedonism hold the spirit of secular man. The restoration of man as imago Dei should furnishes a key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at is a task of the Christianity. The Gospel of the Christianity is the message and the power for the real restoration of man.

I. 밀레니엄 전환기에서의 문명의 흐름

‘현대 사회’란 ‘현대’라는 시간적 개념과 ‘사회’라는 공간적 개념이 합성된 복합 개념으로서 그것은 ‘이 시대의 인간공동체와 그 삶’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현대’라는 용어는 뒤이어 나오는 ‘사회’를 규정짓고 한계짓는 것으로, 일종의 역사적 영역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현대’와 ‘현대 사회’를 논의하기 위해선 역사라는 지평을 도입해야 하고, 또 역사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운위해야 한다.

기독교에서 역사를 보는 지평(地平)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이로스(Kairos)이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Chronos)이다. 이 용어들은 각기 ‘때’와 ‘시간’을 의미하는 고전 희랍어 낱말이다. 우리는 ‘Kairos’를 구속사(Heilsgeschichte) 내지는 구원사로, ‘Chronos’를 일반사 내지 세속사(Weltgeschichte)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원사의 측면에서 현대를 이해하면 오늘날은 천지 창조와 인간타락을 거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이후 세상종말이 오기까지의 중간기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이다. 세속사 내지 일반사의 관점에서 현대를 보면 이 시대는 하나의 세기 내지 밀레니엄이 끝나고 새로운 밀레니엄이 열리는 전환기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밀레니엄의 전환기에서의 문명의 흐름은 어떠한가? 전환기(轉換期)란 이전의 것이 앞으로의 것으로 바뀌는 과도기(過渡期)를 뜻한다. 그런데 이 과도기는 과거의 것이 사라져 가면서도 여전히 잔존(殘存)하고 있고, 미래의 것은 다가오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때이므로 이 시기의 사상은 혼재 내지 혼란의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다가올 새로운 밀레니엄을 목전에 둔 현재를 이해하는 극단적 시각을 들어보면, 한편에서는 이 과도기가 '새롭고 찬란한 테크노피아의 이상향'을 여는 새벽 여명(黎明)이라고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환기가 '인류문명의 쇠망'으로 가는 종말론적 황혼(黃昏)이라고 보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이 '과도기' 내지 '전환기'의 현대를 일면으로는 '호기(好機)'라고 보고, 타면으로는 '위기(危機)'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적 평가 속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다가올 미래는 역시 우리 자신들의 시대이므로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현존(現存)과 삶, 그리고 인류의 방향을 한번 깊이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특히 성경의 관점에서 앞으로 인간의 삶과 인류의 길을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피고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반성은 우선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반성은 물론, 우리가 살아온 현재적 문화, 즉 20세기의 문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II. 20세기 문명에 대한 평가와 반성: 획득과 상실, 발달과 위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이 상이한 것처럼 금세기의 문명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대립된 시각이 병존한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때 금세기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진보(進步)를 이룩한 세기이다. 오늘날의 인류는 놀라운 학술적, 기술적, 문화적 발전을 목도하고 또 향유하고 있다. 일

상의 삶과 산업, 그리고 그밖의 사회 각 영역에 스며든 테크놀로지의 위력, 첨단정보화, 생물복제와 같은 생명과학의 발달, 우주 개발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금세기는 이런 진보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위기(危機)를 경험한 세기이기도 하다. 전례 없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순한 국지전, 자연정복과 기술개발의 독버섯으로 나타난 심각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 흉포하고 잔인한 인간 범죄와 각종 악들, 그리고 심각한 실업난과 경제 위기 등이다. 이렇게 인류는 금세기를 마치 기차레일의 두 선로처럼 발달과 문명화의 한 선로와 위기와 야만화의 한 선로를 평행선으로 하여 달려온 것처럼 보인다.

금세기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실재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갖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획득'과 '상실'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류는 물질적 진보와 기술문명의 이기(利器)를 향유하게 되었으나 오늘의 세상은 정신의 빈곤은 물론 삭막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둘째, 오늘의 인류는 편리하고 재미거리가 넘치는 도회적 삶과 문화는 누리지만 원초적 동심의 세계와 고향은 잃어 버렸다. 셋째, 기술인과 생산자로서의 인간의 대단한 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발휘했으나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습은 상실하고 인간은 물화(物化) 되었다. 넷째, 목하 인류는 정보화, 세계화로 세계 단일 문명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민족과 전통의 고유성은 잃어버리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다섯째, 인류는 자원의 활용과 산업화로 좋은 물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자연은 파괴되고 환경은 오염되어 버렸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의식성장과 자율성 신장은 좋지만 그로 인해 의식의 변질, 가치관의 붕괴와 더불어 윤리적 무정부 상태

가 일어나게 되었다. 일곱째, 국민들은 민주화와 자유주의, 자본주의 같은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로 많은 것을 얻었으나 인간의 극단적 이기주의화와 물신숭배, 향락문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 심화 등 공동체를 깨뜨리는 갖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런 모든 현상을 볼 때 사실 작금은 ‘새롭고 찬란한 미래문명’에 대한 기대보다 ‘세계종말’에 대한 불안한 의식이 더욱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다음 세기, 즉 2000년대에는 기계가 일을 다하고 인간은 놀고 먹는 새로운 신천지(新天地)의 문명이 올 것처럼 언론들과 과학자들은 성급한 예측들을 했었지만 그런 예측들은 포퍼(Popper)의 용어를 빌리자면 한낱 ‘거짓된 예언’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테크놀로지와 문명의 시대에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짓누르는 이 불안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런 불안(不安)의 의식은 단순히 현재적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일언이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재(不在)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사는 인간들과 세상에 기인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각 영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명의 위기를 맞고 불안함이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과학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사실 오늘날의 과학은 생명복제에는 성공했으나 정작 살아있는 에이즈 환자는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생명복제 기술이 인간에게 사용될 경우 캠브리지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Stephen Hawking) 같은 이들이 경고했듯이 ‘신 인류 탄생의 가능성’에 의해 지금의 인류는 형언치 못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또 그것을 과학의 개가라기보다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닥쳐올 하나의 큰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아울러 반도체와 컴퓨터로 이룩된 소위 ‘사이버 바벨탑’은 사소한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일순간 다운되어 버릴 수 있는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 또 그것은 인간을 더욱더 물화(物化), 개인주의화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그 동안 미래적 대안으로 큰소리쳐 왔던 우주 개발도, 막상 외계에 가 보니 먼지 외에는 별것이 없음이 확인되어 우주 내에 지구를 구할 만한 무엇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 Karl Popper의 반증설 이래로 귀납논리에 기초해 있는 전통적인 과학은 진리로서의 토대를 상실해 버렸다.¹⁾ 따라서 이제는 과학이론에도 회의주의와 상대주의가 지배적이다.

둘째, 국내적 및 국제적 사회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얼마 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비롯하여 불란서 같은 강대국들과 호전국들은 여전히 핵무기 및 첨단 살상무기 생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산주의 체제들이 붕괴되어 냉전시대가 지나간 것 같았으나 그간 큰 이념의 띠로서 결속되어 있었던 민족과 종교간의 분규는 더욱 가열되고, 극우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각종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후쿠야마(Fukuyama)는 ‘역사의 종언’에서 냉전이 끝나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만 있고, 이제 ‘지리한 평화’가 지속할 것이라고 예견했으나,²⁾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그의 원고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세계는 이미 ‘세기말의 지리한 분쟁’으로 얼룩져 가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와 권위의 붕괴 및 자유방임주의의 확대로 윤리와 가치의 무정부상태가 되어 있으며, 향락과 마약, 청소년 범죄, 자신

의 육체와 영혼을 담보로 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셋째는 노동과 경제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잘살고 행복해야 하는데 고도문명의 이기 속에 사는 오늘의 인류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여전히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계문제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요인으로는 우선 현상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적 위기를 들 수 있고, 근원적으로는 노동의 소외현상(疎外現象)을 들 수 있다. 노동이란 애당초 삶의 향상을 위해서, 또 자기 삶의 과제로 행하는 것인데, 오늘날과 같은 이기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노동은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임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노동의 진정한 즐거움을 잃었을 뿐 아니라, 노동의 결과인 상품과 화폐로부터도 인간은 소외되어 그것들이 오히려 인간과 대립되고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넷째, 자연의 위기이다. 오늘날 지구는 물과 공기, 토양의 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오존층 붕괴, 그로 인한 각종 질병과 생물의 멸종 및 변종, 이상기온 현상, 또 전쟁과 핵실험을 통한 파괴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가 한스 요나스(Hans Jonas) 같은 생태 윤리학자의 입술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인류가 얼마나 잘살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인류가 지상에서 인간으로 군림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가 되었다.³⁾ 이 지구 땅덩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 때까지의 모든 세대가 같이 향유하도록 주신 삶의 터전인데 우리 세대가 유독 이 자연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Ⅲ. 인간의 위기와 그 위기에서 파생된 인생관 또는 이상들

그러나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인간의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 프롬(Erich Fromm)은 19세기에는 ‘신이 죽었다’는 게 문제였는데 비해 20세기에는 ‘인간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우리는 현대의 여러 문명 비평가들과 함께 현대문명의 가장 근원적 위기를 무엇보다 인간관(人間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도예베르트(Dooyeweerd) 같은 기독교 철학자도 같이 인식하는 문제이다.⁴⁾ 사실 20세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인간 위기를 야기한 인간관의 변화 작업은 이미 지난 세기에 이뤄졌고, 작금의 위기는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인간을 오로지 물질(物的) 존재로만 보았다. 그는 인간에게서 영혼이나 정신을 빼앗아가고 그를 오로지 물질로만 이해한다. 그래서 과거는 물론 오늘날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없다. 밀로셰비치 정권의 코소보 인종청소도 그 잔악한 행위 자체는 어떤 민족적, 정치적 배경에서라기보다 공산주의 체제가 남긴 인간관의 변질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관의 변질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악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을 다른 생물과 본질적인 차이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발달정도의 차이에서만 본다. 과학으로 위장한 이 사상에서 인간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원숭이의 자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세계에는 별다른 고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 인간은 그저 동물적 본능이 지배적인 무의식(無意識)에 따라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

이라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도 인간을 물질적 가치와 로봇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지적 가치와 노동력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여인은 미모, 남자는 능력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이 자본주의화된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시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지 모른다. 이 모든 주장들에 의하면 인간은 우리가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아니라 기껏해야 기계의 조작자 내지 한낱 고등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 모두는 동물농장의 식솔들에 불과하다. 이런 인간관의 변화는 서구문명의 위기를 재촉했음은 물론 그 서구화를 이상(理想)으로 하여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 같은 데서의 위기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 계몽주의 이래로 사람들은 학문과 학문함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신화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몰아내었다. 또 의식과 행위에서 하나님에의 경건과 신앙을 비계몽적이고 유치한 것으로 몰아내고 일반 도덕이나 합리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삶과 사회, 또 역사에서 하나님과 그의 섭리를 망각하고 배격했으며, 그 자리에 자기 자신과 욕망을 내세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사회의 역사로 소위 ‘근대화(近代化) 과정’을 이끌어 왔다. 그 주인공은 말할 나위 없이 인간이었다. 인간이 자칭 실재의 왕으로 등극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근대화 과정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이 금세기 말에 노정(露呈)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위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등극하여 인간의 세상과 세기를 만들려고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땅 위에는 인간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냉철하게 살피면 인간 대신에 테크놀로지, 돈, 일, 이데올로기, 욕망의 흔적이 온 천지에 널부러져 있으며 그것들이 설쳐댄다.

그러면 인간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인간은 자기 대신 중심에 자리잡은 기술과 돈, 일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욕망의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돈을 위해 몸을 파는 여인들, 돈을 위해 몸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에게 혹 동정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實證)해 준다. 그래도 과거에는 인간은 인간의 노예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기계인, 나사인, 로봇이 되었고, 돈 제단의 사제, 이데올로기 종교의 충실한 신봉자가 되어 버렸다.

누가 인간의 해방을 감히 노래했는가? 나폴레옹, 마르크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등이 인간의 해방에 대해 노래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역사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렸고 인간도 어느새 종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서 결국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고 인간의 심령에는 종교의 씨(semen religionis)가 있다는 것이 실증된 셈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다른 무엇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이제 이런 현대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세속주의(하나님도 내세도 없고, 오로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는 입장), 인본주의(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을 절대화시켜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입장), 이성 및 과학 절대주의(이성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이고, 또 과학이 설명해 주는 경험적 세계만이 유일한 실재계이며,

나아가 과학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상), 상대주의(진리의 최종적 근거나 가치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지적 무정부상태와 윤리적 허무주의), 자유방임주의(욕망과 본능의 방향을 정상으로 보고, 괜히 종교나 도덕이 그것을 죄악시한다고 생각하며, 그 욕망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입장), 이데올로기 숭배(공산주의 같은 메타담론 내지 이데올로기가 쇠약해진 오늘날은 경제성장, 군사, 민족, 극우 자본주의 등 각종 이데올로기가 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숭배한다) 등이다.

IV. 현대인의 인생관과 세계관

이제 그러면 이런 정신 속에서 현대인은 어떤 인생관을 갖는가? 영혼의 불멸, 신이나 내세 같은 초월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부인하는 이들의 삶은 그 기저(基底)에서 볼 때 대략 두 가지 인생관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것은 곧 허무주의(虛無主義)와 쾌락주의(快樂主義)이다.

현대인의 인생관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생(生)의 단명함, 일상의 무의미성, 존재의 허허로움 등과 같은 인생에 대한 반성의 결과에 근거한다. 그래도 허무주의는 일반적으로 문학인이나 예술가들, 그리고 철학자들같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이들이 갖는 삶의 태도이다. 허무주의가 극으로 달릴 때 윤심덕 처럼 ‘사(死)의 찬미’를 부르며 자살과 자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과거 기독교의 수도자들과 은수자들, 그리고 동양의 은자들도 그 출발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이 삶과 세상사에 대한 허무를 읊조렸던 것

이다. 그것은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자살을 긍정한 고대 스토아학과나 또 플라톤의 사상과는 또 다른 류의 염세주의인 것이다. 그래도 허무주의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소유(無所有)와 청빈(淸貧)에 대한 가르침일 것이다.

이러한 허무주의와 달리 이 시대 대다수 속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즐거자’라는 인생관이다. 흔히 문명발전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논리 가운데 문명이 왜 발달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는 ‘궁핍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궁핍증으로 인해 지식과 학문이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게으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게으름으로 인해 첨단기술과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심한 사람’ 때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심심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의 기술문명 사회는 우리들에게 즐길 거리들을 정신없이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식도락, 성문화, 스포츠, 연극, 영화, 컴퓨터 오락, 유희 등이다.

따라서 기술사회가 주는 이런 향락적 삶은 ‘인간의 의식’을 허무보다 쾌락의 방향으로 이끈다. 호이징어(Huizinger)의 입술을 빌리면 그래서 인간은 ‘homo ludens’, 즉 ‘유희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세속 대중들이 이 쾌락주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쾌락으로 이끌어줄 재원의 결핍에서 연유한 것이지 재원만 공급된다면 그들의 삶의 기본방향은 그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삶의 즐거움을 위해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려고 한다. 따라서 욕망의 팽감으로서의 그런 금전 취득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위를 본다. 이 쾌락주의는 개인에게는 도덕적 무절제를, 사회에는 향락문화를 조장한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동물처럼 사는지 모른

다. 가일층 때로는 동물 이하로 더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도대체 이 시대 인간들의 삶에는 방향이나 목적이 없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학문의 기본 질문이라고 한 '왜'라는 문제제기가 내적 반성(內的反省)만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무목적성, 탈가치성, 무방향성뿐이며 또 불안과 허무, 욕망과 금전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고난에 허덕일 때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뻗쳐온 것은 종교였다. 오늘날처럼 불안하고 혼란하며, 또 허무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종교가 다시금 그 전가(傳家)의 보도를 휘두르게 될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체로 보아 종교적 신앙에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 한국사회는 여전히 종교는 창궐하지만 유럽의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설령 종교를 소지한다고 표방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적 신앙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건전한 이성(sana ratio)의 포기처럼 느껴지고 종교적 삶을 사는 것은 이 과학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비계몽적 미신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대인들 중에는 종교적 열광주의에 냉소적이고, 스스로 무신론자로 자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까지 있다.

사실 금세기 중반까지 20세기 인간의 의식을 강력하게 장악했던 사상은 한편으로는 ① 과학적 세계관(科學的 世界觀)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② 실존주의 철학(實存主義 哲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상의 공통점은 다같이 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신은 없다' 라고 말하고, 후자는 '신은 죽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이 제공하는 세계관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사실 과학은 존재의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여 주고, 또 그 설명은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설명하는 세계만 유일한 실세계요, 존재와 의미의 궁극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초월계나 영계는 허상이라고 강변할 때, 그것은 일종의 독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생성과정을 과학의 제 분야가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머물 때, 거기에서는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세계가 무엇을 위해 발생되었는지를 알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인간 존재와 세계의 발생을 무신론적 생물학이나 세속적 물리학으로만 설명하면, 그것들은 결국 우연한 것이 아니면 무의미한 것으로 화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정초하고 있는 세속 과학의 종착역은 허무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살인, 대량 학살, 인종청소, 자살, 자해, 윤락 등의 비극은 인간 생명에 대한 이러한 허무주의적 무감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학의 이러한 이론적 한계 위에 우리는 그것의 능력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인류는 과학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인류 문명을 건설해 나왔다고 생각하여, 그것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와 환상은 대단하다. 물론 과학은 첨단기술이란 열매로 인간의 삶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삶의 외양적 변화만 초래했을 뿐이다. 과학이 인간의 존재와 삶에 무슨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해답을 주는가 하는 물음에는 회의적(懷疑的)이다. 인류가 달과 화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가서 산다고 해도, 인간은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면 여전히 슬프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병들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죽음을 맞는다. 우주에서도 인간은 생로병사와 회로애락이라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주공간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우뚝 선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과연 영혼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이는 인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이 인간이 달 세계와 별나라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는 상상한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실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학문의 금자탑이란 그 옛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마치 작은 아이가 진리의 망망대해에서 조가비로 물을 퍼내는 것과 같고, 뉴튼이 읊조린 것처럼 해변가에서 조약돌 하나 줍는 격이다.

인류가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되고, 또 그 아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인간이 알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진리일 수 없는 것이며, 또 인간이 모르는 세계나 진리라고 해서 없는 것만 아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론적 겸손은 물론 존재론적 겸허를 지녀야 한다.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나 절대자가 아니며, 또 역사의 도구와 주연에 불과하지 그것의 감독과 주관자가 아닌 것이다.

사실 위의 우주관을 말하자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월성신(日月星辰)에는 지구와 같은 인간이 살만한 생명적 공간(生命的 空間)이 없다고 본다. 소위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지구는 하나의 태양계의 별에 불과하다고 본다.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될지 모른다. 그러나 창세기의 하나님 말씀은 생물세계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인간이고, 그 인간은 땅 위에 살고, 일월성신은 그 지구의 인간을 위해 주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우주 가운데 인간 같은 생명체가 있다고 믿지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직껏 일월성신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확인, 공인된 증거나 사실은 없는 것이다.

흔히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우주가 팽창, 폭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지구가 생겨났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지구에만 유독 이렇게 진기하고 오묘하고, 신기한 생명의 현상들이 있는지 그들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과 우주의 세계를 연구해 보면 할수록, 설령 기독교의 창조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우주의 배후에는 어떤 고도의 '지적인 디자이너(intelligent designer)'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결국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 강변할지 모른다. 창조주의 존재와 우주의 창조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신앙이 아니냐고. 또 그런 창조론에 비해 빅뱅이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창조론은 비계몽적, 비학문적이고, 빅뱅이론이나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신앙이나 종교는 주관적이고,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주관적 단견(短見)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입장을 말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계시를 비판해 온 과학 쪽에서 가다머(Gadamer) 같은 현대의 해석학자들이나 과학철학자들 - 이를테면 쿤(Kuhn), 포퍼(Popper), 한슨(Hanson), 플라니(Polanyi), 그리고 페어라벤트(Feyerabend) 등 - 스스로가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성이나 학문은 중립적이거나 자율적이지 않고, 패러다임, 선입견, 기대, 이론, 세계관 등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불가피하게 그 가운데서 움직여진다는 것이다. 우주가 빅뱅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

는 것도 신념이요, 우주가 신의 창조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는 것도 신념인 것이다. 인간이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이요, 인간이 신의 자녀(子女)라고 생각하는 것도 신앙이다. 계몽되었다고 하는 지식의 체계들은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에 기초하여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주관적 신앙이 없는 객관적 진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념 내지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학문적 자세가 아니고 세계관의 문제요, 종교적 전제이다.

V. 인간의 문제와 종말 현상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의 문제로 넘어온다. 그리고 본고의 주제인 '현대 세계관'의 문제도 결국은 '현대 인간'의 문제가 된다. 현대 사회의 위기는 현대 인간의 위기요, 현대 인간의 위기는 마르크스나 다윈, 프로이트와 자본주의 등이 마련해 왔음을 전술한 바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독교는 인간을 무엇보다 그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굳이 칸트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Was ist Mensch?'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철학은 물론 모든 학문의 근본 물음이다. 인간에 대해 경험적이고 사변적인 관찰만 해온 과학이나 철학은 인간을 '호모' (homo)라 하고 동물과 다른 현상적 측면만 보고 호모 파버(homo faber),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호모 폴리티코스(homo politikos),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등으로 정의해 왔다. 그러나 걷고, 불을 사용하고,

군집해 살고, 머리를 쓰고, 유희하는 게 동물과 구분된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기독교의 성경(창 1:28)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가 다만 생물학적 필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인격적인 관련 밑에서 지어진 것임을 증거한다. 그 생명과 인격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판연히 다른 질적 차이를 지닌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인간이 지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지닌 이성이나 자유, 창의적 능력에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그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놓인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는 인간의 기본권이나 평등권보다 먼저 이러한 인간의 존귀함에 대한 사상에 놓인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데서 서구 민주주의가 싹터 온 것이다. 흔히들 서양의 세계관과 사상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슴에는 남성과 헬라인 위주의 국수주의적인 편견이 견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οι ελληνοί και βαρβαροι)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노예와 과부, 여성들과 아이들도 따뜻히 영접했다. 우리 사회가 상민이나 여인들을 사람으로 대우한 것은 개화기 때의 기독교의 공적이 결정적인 것이다.⁹⁾ 하여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데서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 소외, 살인과 자살, 매춘과 각종 악들이 사라지게 될 기반을 갖게 된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또 인간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회복에서

사회와 문화의 회복도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그가 종교적 존재임을 말해준다. 또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는 것은 근자의 종말론 현상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세기말 서구에서는 진보론적 역사관이 지배적이었다. 과학적 진보가 괄목하게 일어났고, 산업혁명의 여파로 칸트와 같은 이들이 말한 인간의 선한 의지만 있으면 지상낙원은 건설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콩코르셋(Concorcet) 이후 스펡글러(Spengler) 이전까지 이런 소박한 생각을 지닌 진보론적 역사학자들이 득세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은 그런 진보론적 역사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은 것이었다. 오늘날도 마르크스나 블로크(Bloch)의 좌파적 이상에서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번창하여 문명이 발달하면 인류가 지상낙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류는 어쩌면 더 잔혹해지고 또 이 세기말에도 세계 도처에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래로 인간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패된 인간 심령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지상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아비규환의 이수라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실증해 준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타락적 현존 가운데 있는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며 선을 행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사모하고 지향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선호하고 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 안에서 하나

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회복이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이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때이다. 그는 1555년에 쓴 사행시 353편이 담긴 『상튀리』를 발표했는데, 이것에 의하면 ‘1999년 7월에 하늘로부터 공포의 왕이 내려올 것이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금년을 주목하기도 한다. 또 기독교 내에서의 소위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사상도 이 주후 2000년 경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생각한다. 이 사상은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0년, 오신 후에 2000년 해서 7000년을 세상 끝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사회에는 IMF 이후 다소 주춤했지만 지금도 큰 서점에는 종말론 코너가 있을 정도로 종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출판업계는 물론이고 TV와 영화, 대중 음악, CF와 문화동호회에 이르기까지 신비와 악마, 외계와 초과학, 전생과 환생, 환상과 귀신이 세기말의 이 땅을 부유하고 있다. 이 낯설고 이질적인 용어들은 소수가 열광하는 컬트 문화에서 신드롬으로, 다시 종교에 가깝다시피 넓게 퍼져가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어느새 죽음과 환생에 강하게 집착하는 신비주의(Occultism)과 악마주의, UFO 연구, 초과학 연구 열풍으로 그 영역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런 종말론 분위기 속에 권위는 해체되고 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요가, 마술, 명상과 기(氣) 훈련이 그럴듯한 대안으로 대접받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종말론적 현상을 다음과 같이 본다. 우선 종말론(終末論)은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닌 직선적 역사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고대 회람사상 이래, 근세에서는 니체 이후 ‘영겁 회귀’ 내지 ‘영원한 순환’은 회의주의 철학의 특징이 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은 역사세계의 시작과 함께 역사의 끝을 믿는 관점이다. 따라서 근자의 종말론 신드롬은 대체로 직선적 역사관 속에서 태생된 문화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문란할 때 종말론 현상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혹자는 UFO, 초과학, 영계 이야기, 그리고 기철학이 아주 비계몽적인 것이고 허황된 것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물론 그것들은 그 근본에 있어 대부분 허황되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선 인간은 영적인 존재, 즉 영물(靈物)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이고 인간의 의식과 삶은 영적인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이나 논리의 잣대로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강그리 밝힐 수 없다는 것과 또 실제로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인간 의식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혹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기독교는 역사의 알파가 있듯이 오메가도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역사에는 하나님에 의해 거둬들여지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것은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신앙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인만의 신앙이다. 그러나 종말이나 미래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이든 예측이요 예견이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가하자면 기독교의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그후 신약의 시대에 다 이뤄졌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이제 세상종말이 언젠가 올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성경은 종말에 가까운 현상(기근, 지진, 전쟁, 각종 이단과 거짓종교의 창궐 등)은 설명하지만, 종말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얘기한다. ‘종말이 어디 있겠는가?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고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나 종말이 있음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개인적 종말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이는 죽더라도 나에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생각과 달리 과거나 이 순간에도 개인적 종말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긴장되면서도 엄숙한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의 종말이 어디 있을까’, ‘없겠지’ 라고 추정하는 것도 동일한 속단이라 말할 수 있다. 성경은 결코 우화(寓話)나 동화(童話)가 아닌 것이다.

논의를 마치며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며 근본에서 빛나간 인간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삶을 뜻있게 살도록 이끌어 준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이 가는 길을 이끌어 준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준 인간의 존엄성, 학문의 발달, 예술에서의 역할, 윤리의 신장 등 인류 사회에 공헌한 것을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개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세상의 끝도 있음이 믿어지면 우리의 논의는 정말 뜻깊은 것이었다고 자평(自評)할 수 있을 것이다.

註

1. K. R. Popper, *Logik der Forschung: Zur Erkenntnistheorie der modernen Naturwissenschaft*, Wien, 1935, 학문 이론적 주저인 본서에서 저자는 과학이론은 반증 가능하고 확정 불가능한 오류적 가설이라고 강변하면서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비판하고 있다.
2.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Hamish Hamilton 1989.

3.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Frankfurt a. M. 1979.
4. H. Dooyeweerd,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Nutley 1965, 특히 chap. 8, "What is man?" 을 참조하라.
5. 흔히 Luther와 Melanchton, Zwingli와 Calvin 등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휴머니스트' (Humanist)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칭할 때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 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신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세속적 휴머니즘은 인간의 능력과 자율성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기인한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참고문헌

1. K. R. Popper, *Logik der Forschung. Zur Erkenntnistheorie der modernen Naturwissenschaft*, Wien, 1935.
2.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Hamish Hamilton 1989.
3.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Frankfurt a. M. 1979.
4. H. Dooyeweerd,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Nutley 1965.

전광식 / 고신대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 독일의 Regensburg대학(Ph.D), 고신대 학교 서양철학사 및 신학사상사 교수로 재직. 현재 미국 Harvard대학 고전학부 객원교수. 저서에 『배움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외 다수논문.